



순창군이 계층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해 주민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순창보건의료원 전경.

# 순창군 보건의료서비스 '최고'

### 만 65세이상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경제적 부담 줄여

순창군이 계층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해 주민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순창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1.2%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그만큼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도 더 늘어난 것.

군은 이에 따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군은 조례를 제정하고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해서는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는 제외)을 면제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실제 노인들의 외래비 진료료에 대해 투지되는 돈이 한해 1억여원 정도에 이른다.

특히 군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 증 등 노인들에 대한 만성질환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토대로 각 지역별 만성질환 종류와 분포 관리 상태에 대한 데이터도 구축했다.

다양한 극복방안도 추진 중이다. 우선 전수 조사 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건강취약마을 3곳을 선정하고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0월까지 총 12회가 진행되며 행정인력 8명과 간호사, 치위생, 금연상담사, 영양사, 운동강사 등 20여 명이 함께 삼치면 운암마을, 팔덕면 청계마을, 유등면 외의마을을 방문한다.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맞춤형 당뇨교육도 인기가 있다. 이 교육은 특히 전문강사진들이 참여해 식이요법, 운동요

법, 당뇨바로알기 등을 통해 스스로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8월 첫 회 200여명이 교육을 수강했으며 최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심화교육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당뇨환자 무료 안과검진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여성층을 위해서도 여성비만인을 위한 체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신부 진료·자궁압 검진·갱년기 부인과 상담 등 여성의 건강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임신부와 여성의 건강증진에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장비 현대화 찾아가는 맞춤형 진료 서비스 제공등을 통해 만성질환 없는 순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원형 기자

# 고창군, 팜팜스테이션 창조지역 공모 선정

### 사업비 7억원 지원... 공동체 활성화·농가소득과 연계

고창군(군수 박우정) '천년의 보물 찾기 팜팜스테이션' 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가 시행하는 '2017년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되었다.

고창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7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천년의 보물찾기 팜팜스테이션' 사업은 그동안 고창군에서 시행한 농촌관광 사업에 의해 구축된 인프라를 표준화, 체계화, 네트

워크화하는 사업으로 고창 농촌 문화관광자원 콘텐츠를 관광 상품화한 주민 주도형 '팜팜' 농가를 거점화(스테이션)하고 이를 네트워크 함으로써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내 대기업과 연계한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다섯끼리(먹고, 자고, 사

고, 보고, 즐기는) 교육을 추진하는 등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해왔으며, 이러한 점이 최종 사업선정에 반영됐다.

박우정 군수는 "이 사업은 농촌관광의 핵심 5대요소인 다섯끼리를 상호 연계한 고객맞춤형 융복합 농촌관광 모델개발 사업으로 고창군의 농업과 문화, 관광,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고창군 자체를 상품화함으로써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과, 고창군의 브랜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 문화복지 활동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신청

### 26일까지 만 35세이상~ 65세 미만

남원시는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6일까지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4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3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이며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경영기구의 여성농업인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생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1인당 연간 12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지원으로 연말까지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목욕탕, 찜질방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남원시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26일까지 여성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농협을 통해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으로 여성농업인들의 문화활동과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며 "적극

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생생바우처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라북도 삼라농정과 연계하여 남원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현재 853명의 남원시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보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기업지원 업무 협약식 가져

제)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박우정 고창군수)는 최근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고창의 베리류 및 특화자원을 이용한 2016년도 기업지원(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내 업체 7개소와 업무 협약식을 갖았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문규환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들을 비롯해 관내 7개 업체 대표가 참석해 기업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소와 업체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추진하는 2016년도 기업지원(연구개발)사업은 베리류를 포함 고창의 특화자원을 이용하여 연구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업체의 매출증대를 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업지원(연구개발)사업은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추진하여

사업을 통해 7건의 제품이 개발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 있을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성과보고회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이사장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 기업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구소와 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고, 베리류와 고창의 다양한 특화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 요양시설 게스트하우스 운영

### 냉장고·TV·싱크대 등 갖춰... 차례상 차리는 등 '호응'

남원시 대강면 소재 노인요양시설 광덕원(이사장 정병열)에는 주말만 되면 웃음꽃이 넘친다.

멀리서 찾아오는 자녀들과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이다.

광덕원은 2004년 구)광덕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한 정병열 이사장이 고향발전을 위해 고심하던 중 노인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한 이후 12년째 활발히 운영 중이다.

하지만 멀리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오더라도 근처에 머물 곳이 없어 짧은 시간 면회를 하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주말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생각하게 되었다.

전국 최초로 요양시설 가족계

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이며, 2015년 완공되어 33㎡~66㎡ 규모로 총 5호실로 구성되고 냉장고·TV·싱크대를 갖추어 취사가 가능하여 주말이면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과 멀리서 오는 가족들이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입소자에 한해 이용료는 무료이며, 사전예약제를 실시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고 올 추석에는 차례상을 차리는 등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덕원은 2013년, 2015년 2년 연속 장기요양기관평가 A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정병열 이사장은 재경남원향우회장으로서 남원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아름다운 자연거길 선정

아름다운 풍광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임실군 섬진강 자연거길이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자연거길 100선'에 선정됐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자연거길은 덕치면 소재 물우마을에서 구담마을까지 8.8km구간으로 김용택 섬진강시인의 진피마을, 영화 '아름다운 시절' 촬영지, 월파정 등이 위치해 있어 명품 자연거길로 인소문을 타며 평소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특히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과 산세, 기암괴석 등의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뤄 강바람과 함께 자연을 온 몸으로 느끼며 자연거길을 탈 수 있는 곳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름다운 섬진강 자연거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라이딩객 및 관광객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고인돌휴게소 농특산물 홍보

고창군(군수박우정)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서해안고속도로 고창고인돌 휴게소(하행선)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고창의우수농특산물과 문화관광지를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다.

고창군은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복분자즙 시음과 더불어 고구마, 복분자 한과 등 고향을 대표하는 농특산물로 구성된 샘플세트를 증정하고 황도배기 쌀배, 멜론, 복분자주 등 고창군 주요 농특산물의 전시홍보를 통해 귀성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고창군과 행사에 같이 참여한 고창군새마을부녀회는 바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홍보행사에 동참하여 고향의 정을 함께 나누는데 앞장섰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귀성객들이 고향 가시는 길에 고창 지역 농특산물이 잠시나마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고 앞으로도 고창 농특산물의 적극적인 구매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도로명 주소 활성화 홍보

임실군은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해 귀성객과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추석을 맞아 임실읍과 강진 전통시장을 비롯해 강진, 관촌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끼 및 어깨띠를 착용하고 전단지 및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며 도로명주소의 원리와 활용방법을 설명해 정책 이해도를 높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도로명 주소의 대대적 홍보를 위해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를 비롯해 직접 주민들을 찾아 설명하는 방문대면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 현안 해결·국가예산 확보 등

순창군이 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시책발굴에 팔을 걷어 부쳤다.

군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현실화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2017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황숙주 군수가 직접 주재하고 관련실과장 등 20명이 참석해 군의 새로운 성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열정을 쏟았다.

이날 보고된 신규시책은 144건으로 총사업비는 약 340억 규모다. 지역의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 지역사업과 연계협력 사업, 시설물 이용 활성화, 군민소득 증대, 군민만족도 증대, 우수사례 등 7개 분야 사업이 주를 이뤘다. /순창=이원형 기자

논의된 중요사업은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아쿠아포닉스 사업, 체계산 류타인 연결사업, 섬진강 휴 관광자원 개발사업, 팔왕교 위험도로 재가설 사업 등 농업과 관광분야, 군민안전과 직결된 굵직한 사업들이다.

또 공공화장실 여성안심벨 설치, 희망학교 지원, 청소년 봉사단 운영, 문화의 날 운영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황숙주 군수는 "내년에는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한 시책과, 인구 증대, 기업 유치를 최선의 과제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새로운 시책들은 국가 예산 확보 방안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순창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구체화 하는 노력에 힘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원형 기자

# 지사면 최태호씨, 저소득층 가정 성금 200만원 기탁

고향민들의 풍요로운 명절을 위해 출향인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미담이 되고 있다.

지사면에 따르면, 지사면 영천리 계춘마을 출신인 (주)백광아이에스티 대표이사 최태호(57세)씨가 최근 결손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성금 2백만원을 기탁했다.

최태호 이사는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나눔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면 관계자는 "기탁한 성금은 생활이 어려운 20가구를 선정해 따뜻한 사랑과 함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대표이는 지난 2011년 계춘마을 경로당에 TV 기증을 시작으로 기초수급자 가정과 경로당, 게이트볼장 등에 TV와 감치냉장고를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나눔 문화 확산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최태호씨